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자아와 타자의 얼굴

김광연 (송실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인간의 개별성과 복수성: 공동체 속의 개인

1. 인간 복수성과 공동체에서의 개인
2. 무연고적 자아의 한계와 타자가 없는 공동체

III.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자아와 타자의 얼굴

1. 연고적 존재로서의 도덕적 자아의 요청
2. 타자의 얼굴과 책임적 존재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06>

• ABSTRACT •

The Moral Self and the Face of the Others in the Community

Kim, Gwang-yeon (Research Faculty, Soongsil University)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community have various values. They experience conflicts due to differences, and solve problems through dialogue. In this process, differences arise and conflicts occur. Communities can not be confined to one individual because they differ in their pursuit. Individuals are connected like webs because they live in a community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These are referred to as 'encumbered self' because they are related to others and constitutive communities. The encumbered self is influenced by the whole society and formed as the whole of experience. But in our society, People have a tendency to get rid of encumbered self. Especially, they are pursuing more selflessnes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media and smart phones. This article examines the need for individuals to be individuals as 'moral self' and the moral ethics for the definition of the whole community. Finally, this paper looks at the responsibilities that appear in 'face of the Others' in the community.

Key words: Encumbered Self, Value, Moral Self, Human Plurality, Constitutive Communities, The Face of The Other

I. 들어가는 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은 공동체에서 서로간의 갈등을 경험하며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 들은 서로의 다른 생각과 목적으로 때론 격한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화해 하기도 한다. 공동체는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개인의 가치관에 맞출 수 없다. 공동체는 전체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의견을 거부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은 이미 구성된 공동체에 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연고적 자아'로 살고 있다. 연고적 자아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연고를 가진다.

샌델(M.Sandel)은 우리를 이미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 주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체는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가치관에 젖어들기 전 사랑, 평화, 정의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가치들을 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이미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와 연결된 연고적 자아라고 보았다.¹⁾ 연고적 자아는 타자와 분리될 수 없다. 연고적 자아는 타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타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연고적 자아는 무연고적 존재가 될 수 없고 누군가와 서로 부딪치며 살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연고적 자아는 타자와의 항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샌델은 연고적 자아가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정의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한다.²⁾ 우리가 살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갈등을 경험하는

1) Stephen Mulhall, *Liberals and Communitarians*, 김해성·조영달 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85-86.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샌델은 ‘정의의 우선성’을 제시하고 정의가 다른 가치들 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정의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달리 동떨어져 있어야 하고 정의는 표준이라고 말했다.³⁾ 샌델은 공동체가 다양한 가치들의 충돌로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선호의 방식이 아닌 정의의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한다.

샌델은 연고적 자아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정의나 옳음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칸트를 비롯해서 샌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정의, 옳음과 같은 형이상학적 가치를 제시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이 지닌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많은 사상가들이 정의에 대해 질문하고 외쳤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과 무관하게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고, 정의의 가치보다 우선성으로 간주되는 물질적인 것 또는 도구적인 가치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불의와 타협하고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적이 많았다. 실제로 우리는 정의의 가치보다 선호 또는 좋은 경향성으로 인해 정의의 형식을 거부하기도 한다.

더욱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공동체와 개인의 단절, 타자와 함께 하는 시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연고적 존재로서의 삶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사회로부터 단절되거나 격리된 개인에게 이기적인 자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개인은 공동체 전체에서 무연고적 자아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매체와 스마트폰 발달로 타자의 얼굴을 마주대하

2)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이양수 역, 『정의의 한계』 (서울: 멜론출판사, 2012), 95-96.

3) Michael J. Sandel, 『정의의 한계』, 95-96.

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단절의 이유 중 하나를 SNS의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서로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의 장(場)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현대인들은 점점 연고적 자아에서 탈피하여 어디에도 소속감을 두지 않는 무연고적 자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서 있다.

이 논문은 연고적 자아가 가진 특성을 바탕으로 그 자아가 타자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공동체 속에서 연고적 자아임을 잊은 채,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연고적 자아로 되어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갖 사회적 잡음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다시금 연고적 자아와 그 자아가 지녀야 할 도덕적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웃이나 타자의 얼굴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 연고적 자아는 타자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는 존재이다. 도덕적 자아가 되어가는 연고적 자아는 타자의 얼굴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도덕적 자아는 타자의 아픈 얼굴을 보고 윤리적 요청에 책임을 다하는 존재이다. 이 논문은 오늘날 사회에서 개인이 공동체 전체의 목적과는 달리 자기중심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런 사회에서 연고적 자아가 타자의 얼굴을 보면서 책임을 느끼는 도덕적 주체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II. 인간의 개별성과 복수성: 공동체 속의 개인

1. 인간 복수성과 공동체에서의 개인

칸트(I.Kant)는 인간을 다른 종(種)들과는 차별을 두는 데 그 이유가 인간은 이성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을 자의식을 가진 인격체로서 다른 종에게는 없는 유일한 능력 곧 이성을 가진 존재로 파악했다.⁴⁾ 그가 제시한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였다. 칸트가 인간학에서 강조했던 이성적 존재는 공동체에서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를 말한다.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에 인간은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윤리적 존재여야 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아의 자존심, 허영심, 힘에의 의지 등을 구현함으로써 자신이 모든 피조물과 동일하게 가진 자연의 생존 충동을 다양한 형태의 자아실현으로 바꿀 수 있다. 자연의 충동 또는 생물학적 본능을 넘어 자유에 의해 인간은 삶의 주체가 되고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동물은 군집생활을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확장해 나가면서 역사를 구현해간다.⁵⁾

인간의 활동에서 나의 욕구는 타인의 욕구와 연관되어 있고 타인으로 인해 나의 욕구를 포기하거나 서로 다른 생각이나 타인의 다른 욕구와 충돌이 발생된다. 가령 모두가 동일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해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면 갈등이 불가피하다.⁶⁾ 갈등과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도 타인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4) Emmett Barcalow, *Moral Philosophy* (Belmont: ITP Press, 1994), 144.

5) Reinhold Niebuhr, *Man's Nature and His Communities*, 오희천 역,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들』 (서울: 종문화사, 2016), 31-32.

6) 이정은,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하나』 (서울: 살림, 2012), 5.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독 개인주의가 심하고 타인과의 갈등 양상이 여러 형태로 번지면서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이나 묻지마 폭행 등 다양한 개인의 행동 표출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뛰어 노는 것을 방치하는 부모들, 공원 산책길에 맹견을 데리고 나온 행위들⁷⁾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요즘 들어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강하고 1인 가족 사회의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공동체에서 소통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공동체 바깥에 머무는 주변인들처럼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인간은 연고적 자아에 벗어나 무연고적 자아로 남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고를 벗어 던지려는 자아에는 한계가 없는가?

2. 무연고적 자아의 한계와 타자가 없는 공동체

모든 인간은 어느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적 공동체에 속해 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가족이란 공동체에서 연고를 가진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학교와 직장 생활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느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동체 및 타자와 연관된 ‘연고적 존재’이다.

샌델은 인간은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자아는 어느 정도 허락된 사회적 분위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아는 우연적인 욕구와 원망 뿐만 아니라 목적의 연쇄로 구성된다고 보고, 자아는 이미 구성된 사회적 맥락에 삶의 근거를 두고 있

7) “우리 개는 안 물어요?...반려견 관리 규정·단속 도마 위”, 2017년 10월 23일, JTBC 뉴스 기사. 반려견 천만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 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강아지에게 물리는 사고가 속출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을 하면서 타인의 배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고 보았다.⁸⁾

하지만 연고적 자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무연고적 자아는 초월적인 도덕 주체를 추구하는 존재를 말한다. 무연고적 자아는 삶의 양상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다양성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체를 형성하는 존재이다. 무연고적 자아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거부한다. 무연고적 자아는 홀로 동떨어진 삶을 원한다. 하지만 인간 삶은 단순한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가치들의 총합이다. 다양한 인간 삶의 비규정적 모습은 연고적 자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실제로 무연고적 자아의 방식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 무연고적 자아는 초월적인 자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의 다양성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연고적 자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모른다. 현대인들은 공동체와 사회의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남아 있는 존재, 연고를 거부하는 존재들이 되려는 경향을 가진다. 무연고적 자아가 되려는 우리 사회의 경향성 곧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삶의 방식을 거부할 때 이 사회는 더욱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이기적 인간 욕망의 총화는 더욱 커져만 가게 될 것이다. 이에 샌델은 무연고적 자아의 한계를 설명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타자와 함께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라고 말한다. 그는 타자와 함께하는 구성적 공동체인 사회에서 연고적 자아가 도덕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연고적 자아는 타인과 자신의 삶을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멤버십을 가진다. 타자가 없는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그 공

8) W. Kymlick,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Oxford: Clarendon Press, 1991), 51-52, 홍성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서울: 선학사, 2005), 283 재인용.

동체를 떠나 홀로 사는 삶, 또는 무연고적 자아가 되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샌델이 말한 연고적 자아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개인들’이라고 보았다.⁹⁾ 완성된 주체로서의 개인은 이미 형이상학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의 방식을 이미 내재적으로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요청이 가능한 것이다. 타자가 없는 삶을 사는 데는 도덕적 자아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샌델은 다양한 삶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도덕적 자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도덕적 자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경향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III.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자아와 타자의 얼굴

1. 연고적 존재로서의 도덕적 자아의 요청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은 자신과 함께하는 타자들과 관련된다. 이 조건은 나와 관련 없이 이미 예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삶의 형태이다.¹⁰⁾ 샌델은 인간은 연고적 자아이며 공동체에서 인간 복수성에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자아’를 요청한다. 도덕적 자아는 연고적 자아가 공동체에서 도덕적 행위들을 실천하는 존재를 말한다. 인간은 무연고적 자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 또는 무언가와 관련된다. 인간은 자신이 아닌 타자 곧 다른 인간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상호관계적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불가피하게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연고적 존재이기 때문

9) Stephen Mulhall, *Liberals and Communitarians*, 85-86.

10) 이정은,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하나』, 4-5.

에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샌델은 사회를 서로 다른 상호 이득을 위한 협동적 모험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았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해관계가 동일한 것은 상호 협동에서 모두 이익을 얻기 때문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즉 갈등을 빚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인간 복수성에서 비롯된 ‘다름’ 또는 ‘좋은¹¹⁾’을 ‘옳음¹²⁾’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고 동시에 상호 관계적 인간 존재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¹³⁾

샌델은 복수성을 가진 인간 경험의 다양성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정의의 형식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의 형식을 추구하는 인간은 도덕적 주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정의의 형식을 추구하지 않거나 인간 스스로가 도덕적 주체를 포기할 경우, 인간은 오직 공동체에서 이기적인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도덕적 자아는 ‘좋은’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이기적 존재로 남아 있지 않다. 좋은의 방식에서 이기적 존재로 남아 있는 인간이라면 연고적 존재로서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사회는 연고적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도덕적 자아가 되어야 할 이유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11) William K. Frankena, *Ethics*, 황경식 역, 『윤리학』, 187-188. 좋은 것(the good) 또는 좋은 사물을 ‘좋은’이나 ‘좋은 것’이 되는 성질과는 조금 다르다. ‘좋은’이란 말은 도덕과는 무관하게 유용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옳은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12) Nicolai Hartmann, *Ethics: Moral Phenomena*, New York: Humanities Press, 1932, 186-187. 칸트는 가치(value)를 선(善)의 가능성으로서의 조건으로 보았다. 칸트는 가치의 실현은 좋음(goodness)이 아닌 옳음(rightness)의 행위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가치는 어떤 좋은 것과는 무관한 독립된 존재로 파악한다.

13)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13-114.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좋음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존재에서 타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도덕적 자아가 되어야 한다. 도덕적 자아는 ‘좋은’의 영역에서 ‘옳음’의 영역으로 다가가는 존재이다. 욕망의 충화를 추구하는 인간은 도덕적 자아가 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좋음의 방식에 다분히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도덕과 무관한 ‘좋은(goodness)’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인간 존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경험의 다양성에 노출되어 옳음보다 좋음에 매료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좋음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서로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에서 ‘좋은’을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과 관련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좋음의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동체에서 좋은은 옳음의 방식에 양보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들은 좋음에서 옳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¹⁴⁾ 그 어느 시대보다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옳음’의 방식보다 개인이 추구하는 ‘좋은’의 방식을 더욱 선호하면서 다시금 ‘옳음의 우선성’을 추구하는 도덕적 자아의 요청이 절실히 보인다.

센텔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홀로 무연고적 자아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에 우리가 타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덕적 존재, 즉 도덕적 자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늘 타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도덕적 존재로서 책임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의미와 상통한다. 도덕적 자아는 타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존재자는 결국 타자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도덕적

14) William K. Frankena, *Ethics*, 황경식 역, 『윤리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188-189.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존재를 말한다.

끝으로 우리는 타자가 없는 공동체를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타자 없이 불가능하다. 연고적 자이는 타자의 얼굴과 항상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오늘날 사회는 연고적 자이를 거부하고 무연고적 자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우리는 타자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사회에서 공동체에서의 타자와의 관계와 윤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연고적 존재가 도덕적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의 윤리가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2. 타자의 얼굴과 책임적 존재

지금 한국 사회는 이기주의와 신분차별이 심한 계급 사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우리의 가치는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 ‘같이의 가치’, 이런 문구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생각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나 하나만 잘되면 돼”라는 식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우리는 점점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관을 놓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손님들이 카페나 식당에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게 되는데 일부 아이들의 부모들이 “왜 내 아이 또는 남의 아이를 혼내느냐”는 식의 충동로 인해 식당 주인들이 아이들의 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¹⁵⁾ 실제로 성인남녀 1000명에게 노키즈존에 대해 물었더니, 성인 10명 가운데

15) “어린이는 거부!”, 노키즈 존 갑론을박, YTN 뉴스, 2019년 5월 5일자 기사.

6명이 노키즈존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16) 조용히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공간에서 이런 모습은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지만, 일부 아이들의 부모들에서 비취지는 이기적인 행동들로 인해 노키즈존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만큼 사회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공동체는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 우리는 늘 타자와 마주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연고적 자아는 타자의 얼굴에서 비취지는 그들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는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주체가 윤리적 주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타인의 얼굴이 나에게 다가오고 타인 앞에 나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선험적 방식이며, 이런 행위들이 타인의 존재에 대한 나의 책임이라고 했다.¹⁷⁾ 레비나스는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하고,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나는 타자와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공동체 안에서 무연고적 자아는 불가능하고,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고적 자아로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누군가(타자)와 항상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레비나스는 이웃의 얼굴은 나에게서의 책임을 의미한다고 했다.¹⁸⁾ 레비나스는 ‘내가 여기에 있다(here I am)’는 표현을 쓰면서 존재의 동시성을 말하고 있다. 이웃은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얼굴에서 우리의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다.¹⁹⁾ 『카라마조가의 형제들』에 나타난 대사를 언급하면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말한다. 그는 “우리들은 타

16) “국민 10명 중 6명 노키즈존 ‘찬성’, 베이비뉴스, 2019년 5월 23일자 기사.

17)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33집 (2015), 193-194.

18) E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8), 88.

19) E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146.

자에게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²⁰⁾고 말했다. 레비나스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타자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레비나스는 얼굴, 특히 험뵈은 자의 얼굴, 고통을 호소하는 얼굴에 주목했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은 궁핍 그 자체이며 아픔 그 자체를 말한다. 그는 이런 벌거벗은 얼굴을 통해 ‘본질적 궁핍’이란 표현을 사용했다.²¹⁾ 그에 의하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책임은 단순히 일반적인 책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책임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개인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책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레비나스는 책임을 타자에 응답하는 능력(respond-ability)으로 간주했다.²²⁾ 또한 그는 진리는 타자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 진리는 타자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타자에게 다가갈 말을 거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했다.²³⁾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만남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 ‘윤리적 명령’이라고 보고, 타자의 얼굴을 통해 윤리적 계명이 요청되어진다고 했다. 타자는 인식론적 현상이 아니라 윤리적 명령으로 내게 다가온다.²⁴⁾ 그는 주체의 상실이 아닌 주체성에 대한 옹호를 제시하고 얼굴로 다가온 타자의 존재 앞에 내가 존재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체인 우리(나)가 타자의 얼굴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책임이라고 보았다.²⁵⁾

20) E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146.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 모형’에 한 연구” 194 재인용.

21) 박치완,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적 해석이 가능한가?,” 『범한철학』, 64권(2012), 179-180.

22)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 모형’에 한 연구”, 194.

23)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62.

24) 박원빈,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윤리 - 마르틴 하이데거와 다르게 사유하기,” 『철학』 95권(2008), 190.

우리는 홀로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이 주는 의미는 다양하다. 또한 그들이 표정 짓는 모습들 안에는 그들 내면의 마음이 반영된다. 그들의 웃음과 울음을 표현하는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항상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심코 타인의 얼굴을 지나치고 있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마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선을 피하고 있다. 타자의 얼굴을 외면하기 보다는 언제부터 ‘마주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오히려 서로 마주보는 시선을 피하는 게 미덕이라고 할 만큼 개인주의가 만연해졌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타자의 얼굴을 보고 있는가? 그들의 창백한 얼굴에 있는 도덕적 책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레비나스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와 구별되는 외모나 나와 다른 모습을 한 타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와 전혀 다른 타자의 출현을 목격하게 된다고 보았다.²⁵⁾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거리를 설명하면서 근접성(proximity)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이 말은 상태의 지속성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을 말한다. 그가 말한 근접성은 주체의 확장이다.²⁷⁾ 우리는 늘 타자와 근접해서 살아간다. 우리는 가까이 사는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이다. 우리 각각의 주체는 늘 타자와 가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도덕적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

구약성서에 모세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묶을 밭에 베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네가 포도원의 포도를 다 수확한

25) 성신형, 『틸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 (서울: 한들출판사, 2018), 63.

26)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176-177.

27) E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86.

후에 남겨 둔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여행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버려두라”고 했다. (신 4:19-23) 마찬가지로 성서의 가르침은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적 삶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예수도 마찬가지였다. 공동체의 삶에서 황금률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의 나눔과 더불어 살아가는 타자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멀리 있는 이방인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의 사람들의 아픔에 더욱 큰 의무감을 가진다.²⁸⁾ 저 먼 아프리카 아이들의 아픔까지 헤아리려면 좋겠지만 물리적 한계에 부딪치면서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늘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타자의 얼굴이 노출된 공간에서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도덕적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웃은 타자와 함께 하는 공간이다. 멀리 있는 사촌의 얼굴보다 이웃의 얼굴이 우리에게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조건은 공동체 안에서 타자의 윤리를 요청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늘 가까이 있는 우리들 이웃의 얼굴은 우리들을 더욱 책임적 존재로 만든다.

끝으로 “도덕이 사람들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들이 도덕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²⁹⁾라는 프랑케나(W. Frankena)의 말처럼 도덕은 인간의 좋은 삶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졌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도덕의 주체이고 그렇기에 도덕적 자아로서의 인간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

28) Rachels, J.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New York: McGrawHill, 1969), 200-201.

29) William Frankena, *Ethics* (New Jersey: Prentice-Hall, 1973), 116. 최제윤, “자기 이기적인 행위자의 도덕적 삶”, 『철학논총』, vol 36(2004), 437 재인용.

다.³⁰⁾ 도덕적 의무는 우리(개인)에게만 개별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³¹⁾ 공동체에서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도덕의 권위를 자기의 이익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덕적 자아들로 구성된 사회는 나 혼자만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이 마주치는 공동체의 변명을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IV. 나가는 말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아’들로 구성된 곳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개인은 서로의 욕구에 충실하여 타자의 가치관을 배제하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한국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서로 간 대화의 단절이 심해졌다.

우리가 개인의 생각을 스마트폰이나 SNS에 공유하면서부터 타자를 마주대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가치관을 나누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오히려 아주 먼 시간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연결 시대에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는 역설적인 모습이 그려진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말한 진정한 소통은 타자의 얼굴을 마주대함으로써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통해 느끼는 책임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오늘날 소통은 오히려 초연결 시대에 역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연고적 자아에서 주변인으로 남게 된다. 홀로 옳음보다 좋음을 추구하는 사회 각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경

30) 최제윤, “자기 이익적인 도덕적 삶”, 437.

31) Louis P. Pojman & James Fieser, *Ethics: Discovering Right and Wrong*, 박찬구·류지한·조현아·김상돈 역, 『윤리학』 (서울: 울력출판사, 2011), 323.

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타자에 대한 배려와 상호의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타자의 얼굴을 늘 마주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얼굴과 얼굴(face to face), 마주보기, 마주침, 만남의 윤리는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타자의 윤리를 요구한다.³²⁾ 무인도에 홀로 사는 로빈슨 크루소는 인간(타자)에 대한 규범적 행위가 불필요하다. 다만 그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을 필요로 할 뿐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가치관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구성원들의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respect)이 요청되어야 한다. 존중의 윤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이 가진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넘어 공동체가 가진 다양성까지 수용하는 것이다. 개인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경우 더욱 수용과 존중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³³⁾ 타자를 배려하는 사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개인이 사회와 가족 그리고 타자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감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개인은 타자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상호 신뢰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다. 타자의 얼굴을 보면서 윤리의 요청이 발생하기 보다는 타인의 얼굴이나 시선을 피해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본주의 힘에 좌우되면서 그 세계관이 정해 놓은 가치관에 우리들 자신이 포섭되어버렸다. 우리는 거대한 자본주의 흐름에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가치관을 잃어가고 있다.³⁴⁾ 우리가 혹시나 자본

32) 김연숙, 『레미나스, 타자윤리학』 (서울: 인간사랑, 2001), 142-143.

33) Lawrence M. Hinman, *Ethics: A Pluralistic Approach to Moral Theory* (Belmont: Thomson Wadsworth, 2003), 372-373.

주의 구조 속에서 타자의 얼굴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자본주의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는 돈의 힘에 눌려 살다보니 타자의 얼굴을 외면하는 일들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시금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도덕적 자아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덕적 책임은 개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수행능력이 모여서 공동체 전체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성원들은 각자 ‘도덕적 자아’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타자의 얼굴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어야 한다. 내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얼굴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타자의 얼굴이 던지는 메시지는 늘 외면한다. 타자와 함께 하는 존재, 그들과 동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은 그들의 얼굴을 통해 공동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개인주의가 심한 한국 사회에서 내 가족의 얼굴을 얼마나 보고 있으며, 내 이웃의 얼굴은 얼마나 보고 있는가? 그들이 내게 얼굴을 보이면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지는 않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연고적 존재이자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타자와의 관계에 근거한 주체성은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윤리적 주체성을 말한다. 레비나스는 윤리적 주체는 인간 관계성에 기초한다고 보았다.³⁴⁾ 우리는 타자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홀로 무인도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타자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연고적 존재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늘 타자를 통한 윤리적 관계를 위해 도덕적 실천에 주저하지 않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34) Willam Schweiker, *Power, value and conviction: theological ethics in the postmodern age*, 문시영 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윤리』 (서울: 도서출판 살림, 2003), 273-274.

35) 성신형, “포스트휴먼 시대를 위한 사회정의론,” 『윤리연구』 118권(2018), 98-99.

참고문헌

- Arrington, R. L. *Western Eth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 Malden: Blackwell Publishers, 1998.
- Emmett B. E. *Moral Philosophy*. Belmont: ITP Press, 1994.
- Frankena, W/ 황경식 역, 『윤리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Hartmann, N. *Ethics: Moral Phenomena*. New York: Humanities Press, 1932.
- Hinman, L. M. *Ethics: A Pluralistic Approach to Moral Theory*. Belmont: Thomson Wadsworth, 2003.
- Kymlick, W.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Oxford: Clarendon Press, 1991.
- Levinas, Emmanuel.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1.
- Niebuhr, Reinhold/ 오희천 역.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들』. 서울: 종문화사, 2016.
- Pojman, Louis P & Fieser, J/ 박찬구 · 류지한 · 조현아 · 김상돈 역. 『윤리학』. 서울: 울력출판사, 2011.
- Rachels, J.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New York: McGrawHill, 1969.
- Sandel, M. J/ 이양수 역. 『정의의 한계』. 서울: 멜론출판사, 2012.
- _____/안진환 · 김선욱 역.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서울: 와이즈베리, 2016.
- Schweiker, W/ 문시영 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윤리』. 서울: 도서출판 살림, 2003.
- Stephen, M/ 김해성 · 조영달 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William K. Frankena/ 황경식 역. 『윤리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김은희. “자유주의와 무연고적 자아.” 『동서사상』 vol.1(2006), 161-207.
- 박원빈.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윤리 - 마르틴 하이데거와 다르게 사유하기.” 『철학』 95권(2008), 173-198.
- 박치완. “레비나스의 “얼굴”, 윤리학적 해석이 가능한가?.” 『범한철학』 64권(2012),

163-197.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 모험’에 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33집 (2015), 177-201.

_____. “포스트휴먼 시대를 위한 사회정의론.” 『윤리연구』 118권(2018), 85-106.

_____. 『탈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 한들출판사, 2018.

이정은.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 하나』. 서울: 살림, 2012.

최제윤. “자기 이기적인 행위자의 도덕적 삶.” 『철학논총』 vol 36(2004), 423-441.

홍성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서울: 선학사, 2005.

“우리 개는 안 물어요?...반려견 관리 규정·단속 도마 위”, 2017년 10월 23일, JTBC 뉴스 기사.

“어린이는 거부!, 노키즈 존 갑론을박“, YTN 뉴스, 2019년 5월 5일자 기사.

“국민 10명 중 6명 노키즈존 ‘찬성’, 베이비뉴스, 2019년 5월 23일자 기사.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27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2일

• 국 문 초 록 •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다. 이들은 서로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점으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한다. 공동체는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만 맞출 수 없다. 개인은 이미 구성된 공동체에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연결된다. 이들은 타자와 구성적 공동체에 연관되기 때문에 ‘연고적 자아’라고 불린다. 연고적 자아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받고 경험의 총체로 형성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연고적 자아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가진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 매체와 스마트폰 발달로 더욱 무연고적 자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사회를 고려하여 이 글은 개인은 ‘도덕적 자아’로서의 개인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 전체의 정의를 위한 도덕 윤리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공동체 안에서 타자의 얼굴에 나타난 책임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타자의 얼굴을 항상 마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외면한다. 우리는 단순히 나와 구별되는 타자의 얼굴이 아니라 늘 우리와 마주하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살피게 될 것이다.

주제어: 연고적 자아, 가치, 도덕적 자아, 인간 복수성, 구성적 공동체, 타자의 얼굴
